

第64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4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10月30日(木) 午前10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現地踏査結果報告採擇의件

審査된案件

1. 現地踏査結果報告採擇의件(委員長 提案) 1面

(10時08分 開議)

○委員長 鄭昌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4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의 태백시의회 비교시찰과 어제 현장답사한 결과를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지역개발위원회의 의정활동 홍보와 결과를 구행정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1. 現地踏査結果報告採擇의件(委員長 提案)

○委員長 鄭昌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답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林洛吉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현지답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委員長 鄭昌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첨부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수정이나 첨부에 앞서서 어제 우리 지역개발위원들이 아리랑길과 인촌로를 가 봤을 때 물론 행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가라 한다할지라도 우리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주민의 복리향상 또 지역발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 봤듯이 인촌로는 보문동에서 고대병원으로 가다 보면 우측 옹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쪽 좌측 도로 쪽으로 10m를 확장을 하고 저쪽을 축소한다, 넓히지 않는다 그 뜻은 예산관계상 시 예산을 덜 소비하고 이쪽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이것은 강력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어제도 주민들 얘기대로 길은 구부러지면서 한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우리가 가서 산다든가 구청 관계관들이 그 지역에 산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반대할 겁니다, 아마. 내 재산 피해가 그렇게 오는데 찬성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건의서 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피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교통도 같이 나뉘야 하는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건의문으로 채택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아리랑길 역시 어제 한 분은 내집이 지하1층에 지상5층 건물로서 이 월세를 가지고 그 분들은 생활을 유지해 나오는데 다 잘라져 버리고 나니 뒤로 짓는다고 해 봐야 그 보상이 가지고는 어렵도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보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보상의 절차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서 확장할 수 있는데 동의를 얻어줄 수 있는가, 그 분들은 보상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상에 따라서 확고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건의서를 넣든가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본대로 들은 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현지답사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委員長 鄭昌萬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행정 감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질의, 답변을 해가지고 정확한 명답을 받아 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김순권위원님 말씀하시죠.

○金順權委員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 절차는 토지수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거든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보상을 할 때 가능한 거기 보상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최대한 하면서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보상가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그냥 업무를 성실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나태하게 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아마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는 저번에 아리랑길이라든지 인수로 같은 경우에 길을 넓힐 때 일단 용역을 맡기더라고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길 때 관계법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길을 확장하면 좋겠냐,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청은 확정만 짓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려되는 부분들이 도로의 원활한 소통 부분과 두 번째는 보상 부분이 고려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리랑길 같은 경우도 공사의 난이도를 생각해서 한 쪽 부분만 10m를 쳐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쪽 주민들의 반발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도시계획선 확정이 난 상태인데 그것을 구위원으로서 다시 어떤

주민들과 함께 문제제기를 할려고 보니까 또 다른 행정의 부작용이 우려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중간에 그만 뒀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鄭昌萬 나광수위원 조금만 계세요. 김영기위원님,

○羅光洙委員 아니 거기에 의해서 내가 말씀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어제 인촌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헤어진 뒤에 물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헤어졌는데 다시 나를 불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왜 공청회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10m를 밀어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재산권을 좌지우지 할 때는 주민 의사가 더 중요할텐데 그런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확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께 건의해서라도 공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여기에 답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鄭昌萬 네, 김영기위원님.

○金鈴基委員 나광수위원님의 지금 우리가 하나의 여기의 너무 불합리성을 건의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도로는 양면의 도로계획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 한 쪽 편도 합으로써의 일방적인 재산 피해가 너무 많다고 하는 지금 그 말씀이신데 어제께 현장답사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 쪽 면으로만 이렇게 도시계획에 집어넣었을까하고 현장을 제가 잠시 답사를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여기에 그 지역 출신 우리 유홍선위원님이 계시니까 물론 저하고 의견을 달리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반대 우측편은 물론 공사가 어려움도 있지만 그쪽에 올라가는 계단에 그쪽에 5m를 접할 때에 그쪽길은 계단에 완전히 절개지역이 되어가지고 그 계단을 못쓰게 되더라고요. 드나드는 출입로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는 물론 공사비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그쪽을 집어 넣어서는 동네가 출입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한 쪽 편도로만 도시계획을 집어넣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군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그러면 그쪽을 집어 넣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반면에 반대 쪽에다 예산을 흡족하게 많이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것 등도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게 양면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감히 우리가 선불리 이것을 왜 이쪽 한 쪽 편만 해서 주민의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느냐 한나라는 것은 지역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 무차별 이렇게 건의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신중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昌萬 나광수위원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羅光洙委員 아니 제 의견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물론 저쪽 공사를 봤을 때는 난공사인줄 압니다,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이렇게 난공사 지역이고 이리함으로 어떠한 이쪽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쪽 공사가 난공사고 이쪽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쪽에다만 일방적으로 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남의 재산을 아무리 국가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짓밟을 수 없단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鄭昌萬 유홍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柳興先委員 유홍선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누구 보다는 잘 압니다.

저는 이 길 인촌로가 확장된다고 전에 96년도에 집을 짓는데 허가를 내 주는데 어떻게 내 줬나 하면 2m50cm만 떼면 허가를 해 준다해가지고 지금 반대 방향의 2m50cm를 떼고 지었습니다. 92년도에, 지어가지고 집 팔아먹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 한 3년전에 인촌로 이야기가 들먹거리다가 지금 현재 인촌로 길이 확장 때에 측량도 다 끝나고 또 금년에 5월달에 지금 그 너머 지금 현재 안암동 역사 주위에는 보상이 끝나가지고 건축을 새로 허가 내준 집도 있고 기존 건물을 잘라가지고 보수해서 거의 완성 단계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97년도 5월달에 허가 해주는 것도 양쪽 5m를 떼고 3m를 또 떼야 된다고 그러면 그 집들도 3m떼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때는 3m 이야기하지 않고 5m만 떼는 것으로 해서 수리를 했고 새로 허가를 내서 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미관지구가 된다 해가지고 춘사의 거리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3m 떼게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어진 집들은 5월달부터 시작해서 수리가 끝난 집은 5m만 떼었고 지금 허가 낸 집은 3m를 넣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이 난상토론이 있었던 것이고 주민하고 구청관계 사이가 조금 안 좋았던 것이고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 나광수위원이나 김영기위원 2분 위원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만 계단 때문에 길이 한쪽으로 10m 잘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떠한 말없이 잠음없이 시청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반대편에 10m를 잘라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그런 여론이 확산될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5m를 자르면 축대가 높으니까 축대가 너무나 높으니까 이것을 그안에 집까지 다 비워낸 다음에 보상해 준 다음에 5m자르고 다시 이것을 불하해 주는 이런 복잡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40억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40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쪽 10m만 잘라야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 40억 소리를 안했으면 10m 들어간 사람들이 어떠한 반론의 여지가 없죠.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40억 소리가 난데다가 10m자르고 또 10m 자른 것 3m 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것 저것이 즉 말하면 불만이 터졌고 표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주민들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들었지만 40

억 남은 이익이 본다는 돈을 40억 다 안 준다 하더라도 다만 10억이라도 이쪽에 10m나간데다가 지금 현재 보상은 얼마인데 정부에서 공사 진척 빠르고 정부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이 돈을 몇%를 반대 10m 들어간데다가 이 돈을 더 준다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평불만이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40억 이익은 이익대로 보면서 일방적으로 한쪽 주민만 10m 들어가 버려라,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말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구청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립되어 가지고 시끄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위원 여러분들께서 어제께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어제 현장 답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 논의해 가지고 구청에다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昌萬 다른 위원님, 수정이나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것을 한 번 말씀을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林洛吉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 타당성이 있고 또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구체화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고 보상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달라라고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 현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니 주민의 의견이 이러 이러한 의견이 있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대략적인 방법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않고 또 업무 형태 성질로 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적정성이나 또는 도로 편입 지역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사

업시행을 하도록 이런 형태 정도로만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정안을 그렇게 해서 할까요?

○羅光洙委員 그래요. 전문위원하고 위원장님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청취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하면 된다는 선에서 해 가지고 부의하기로 합시다.

○專門委員 林洛吉 제가 지금 그 문구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성과 및 의견이라는 난이 있는데 태백시의회나 아리랑길 및 인촌로에 대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성과고요, 그 밑에다 의견란을 하나 신설해서 아리랑길 및 인촌로에 대한 지역개발위원회에 현지답사 의견해 가지고 도시계획 편입지역에 대한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시에 보상비의 적정성과 도로편입지역에 대한 재산권 주민 재산권 침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원이 발생하지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한다. 이런 정도만 작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昌萬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수정해서 올릴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수정이나 첨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이나 첨부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문제점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을 구행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4일간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1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鄭昌萬 文京周 金甲濟

金 順 權	金 鈴 基	羅 光 洙
徐 榮 振	申 在 福	柳 興 先
李 承 魯	李 鍊 垧	許 東 翼

○缺席委員 1人

金 東 殷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林 洛 吉
---------	-------